

사설

은겨레 손잡기 운동

화해와 평화를 향한 '은겨레 손잡기 운동'이 올 3.1절에 전국 규모로 열리며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 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종교지도자들이 이 자리에서 새천년 3.1절을 '화해와 평화의 날'로 선포한다.

81년전 인류평등과 민족자존을 내세우며 전국 방방곡곡을 만세 함성으로 뒤덮었던 3.1정신은 이제 이렇게 새천년의 가장 큰 화두를 분단된 민족과 인류애에 던져 놓는다.

화해와 평화야말로 전세기(前世紀) 인류의 비원이었으며 세기가 바뀌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가 아닐수 없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미 지난 세기 독립선언서를 통해 인류를 향해 이 비원을 호소한 바 있다.

평등과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독립선언서는 오늘에도 생동감 넘치는 호소력을 여전히 지닌다. 더욱이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정치적 슬수로 인해 틀어막이고만 동서의 갈등으로 인해 민족 모두는 지금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3.1독립운동은 한국역사상 유일하게 한민족의 마음을 웅대한 인류적 이상 앞에 하나로 묶어놓았다. 일본측 공식 집계로 당시 1919년 전국 2백만명이 참가한 만세운동은 당시 2천만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 1천5백여회의 시위 도중 7천5백여명

이 사망하고 5만3천여명이 검거됐으며 1만6천여명이 다쳤다. 그러함에도 얻어낸 것이 무엇이냐는 회의와 함께 부정적 시각 또한 없지 않으나 이 숭고한 정신이 4.19와 5.18등의 항쟁과 맥락이 닿아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3.1운동은 필요할 때면 어느 때고 분출돼 나오는 거침없는 민족기력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세기가 바뀌면서 3.1운동은 '저항을 통한 평화'에서 '화해를 통한 평화'로 거듭나려 한다. 자주권을 잃어 지도자를 가질수 없었던 81년전 당시, 만해·용성 스님 등 불교지도자를 비롯한 여러 종교지도자들이 앞장서 이끌었던 운동이 아니었던가.

'저항'이 '화해'로 승속되는 과정이 오히려 담연해 보이는 소리가 아닐수 없다. '화해와 평화를 위한 은겨레 손잡기 운동'이 종교지도자 3백33인의 주체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점 또한 그렇다.

북한동포의 참여까지 기대하며 판문점에서 대전을 거쳐 목포 부산을 거대한 사람 인(人)자 모양으로 이어 보겠다는 '은겨레 손잡기 운동'은 21세기의 3.1정신운동이 될 것이다. 만세 부르던 그 손을 서로가 잡아 새로운 '화해와 평화'를 선언하게될 이번 행사에 불자들의 자발적 참여 또한 적지 않으리라 믿는다.

사이버 핵불 대책 세우자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를 찾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종교간의 갈등 문제일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종교간의 갈등으로 수많은 인명이 스러져가는 참혹한 사태가 이곳 저곳에서 연이어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언제 어디서 종교간의 큰 분쟁이 일어날지 조마조마한 형편이다. 그리고 이런 위기감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일부 특정 종교의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이 다시 일부 관심자들의 타종교에 폭력적인 공격행위로 증폭되어 나타날 때이다.

이런 형태가 이제는 미래의 새로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까지 만연되고 있다. 요즘들어 인터넷 사이트와 PC통신 등에 불교비방·편파 등의 핵불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종교간의 갈등으로 얼룩질 수 있는 비극적 가능성을 암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런 사태를 단지 일부 불지각한 광신도들의 행위로 치부하는 안이한 발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자각으로, 미래의 새로운 공간에서나마 종교간의 화합과 공존의 방식을 진지하게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다.

우선은 이런 폭력적 행위의 중심인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각성을 촉구하여, 모든 종교의 화합이 밝은 미래 건설의 기본이라는 것을 함께 선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열려진 세계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그러한 폭력적인 행위를 '지나친 신앙심' 정도로 치부하고 있던 소위 '건전한 신앙인' 그룹과 종교지도자들에게 이러한 행위가 바로 자신의 종교에 대한 해교행위이며, 공동의 미래를 만드는 범죄적 행위를 인식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이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종교간의 화합에 가장 열린 불을 지닌 불교계가 앞장 서서 건전한 종교 문화 선도하는 사이버 공간을 창출하여 건전한 지성인들의 여론을 형성하는 등 전향적인 움직임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사이버 핵불 행위에 대한 방비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또 엄하게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사이버 공간을 미래 종교화합의 새로운 공간으로 일구어나가는 큰 비전으로 불교의 종교적 관용성이라는 장점을 꽃피워내는 것만이 사이버 핵불을 근절하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열린마당

사찰 관광특구개발

신앙공간 특징 부각

이수찬(동화사 기획과장)

사찰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 개발문제는 현실적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는 문화적 가치를 지닌 민족 전통문화와 국민의 휴식공간이 수려한 명산의 대부분을 불교사찰이 소유한 데 따른 사회적 요구와, 한편으로는 불교인의 신앙생활과 스님들의 수행공간 보호라는 두가지 상반된 현실에 기초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사찰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 일반의 문화관광지로서의 역할은 말 그대로 사찰의 불교신앙적 황폐화와 박제화된 공간으로의 역할을 강요받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개발 자체를 막고자 하는 경향이 교계의 기본정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사찰 수입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관계기관과의 적극 추진하거나 권장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관광지화된 유수의 사찰에 가보면 불교의 신앙 성보인 탑과 각종 전각 그리고 불상은 대상화된 관광거리일 뿐이며 골동품화된 문화재로 취급받고 있다. 그들은 안내문의 경고나 불교신앙에 대한 배려라는 조목도 없이 사진찍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큰소리로 웃고 떠들고 심지어 사찰의 법회마저 한낱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어차피 전통사찰 공간의 문화적 개발이 사회적 요구를 피할 수 없다면 불교계가 나름대로 원칙을 수립하고 신앙적 공간을 보존하는 내적역량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렇게 하여 선진화된 관광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사찰의 관광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면 수행과 전법이라는 사찰고유의 역할도 다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환경·문화 보존우선

양산스님(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장)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사찰주변 관광지와 개발을 열을 올리고 있다. 물론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이자 종교적 성지로서의 사찰은 국민들의 휴양처이자 정신적 귀처로서 편리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민들의 불교문화의 진면목을 널리 홍보해야 할 두가지 과제를 사찰이 안고 있는 셈이다. 이는 마땅히 이 시대의 불교가 지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이미 전국의 사찰주변은 무분별한 위락단지의 조성과 유흥상가 등으로 수행공간의 청정함은 일주문 밖을 나서면 다른 세상의 일인 것처럼 느껴진다. 얼마전 무산된 해인골포장 건설 계획부터 최근 지리산 식수당 건설 문제까지 사찰과 주변환경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커다란 건설이나 위락단지 조성의 문제가 아닌 '역사' '문화'와 관련된 개발이라 하더라도 그 관점에 따라 개발이 결국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을 망쳐놓는 결과를 우리는 곳곳에서 목도케 된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불교관광지와 개발이 있어 우리는 막대한 포교의 효과나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나무'에 가려 소중히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 및 문화환경이라는 '숲'은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이라도 그 목적이 어떠한 간에 영리를 염두에 둔 각종 개발행위는 중지되어야 한다. 사찰은 개발에 앞서 친환경적 대안과 계획을 먼저 제시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환경보존의 목소리에 좀더 귀 기울여야 한다. 종단과 사찰환경보존위원회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영령하는 개발행위는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홍보·수익증대 기여

설재훈(전남 곡성군청 지역개발과)

곡성군은 몇몇전 오산면 소재 관음도량인 관음사 사적기에서 '심청전'의 원형이라고 할 연기설화를 발견하면서 관광코스 조성계획을 세우고 있다. '심청전'의 무대가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라는 기존의 설을 뒤집는 것이어서 더욱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일이다. 이에따라 우리 군은 철저한 고고작업을 거쳐기 위해 지난해 7월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연구사업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 군의 경우처럼 사찰을 긴 관광코스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가 더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실무자들은 우리 군과는 다른 경우이지만 지역관광코스를 개발하는데 지역민들에게 종교적인 오해를 사는 등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의 관광개발은 불교관광지 개발 사업이 아니다. 다만 불교가 우리 민족과 오랜 세월 함께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일 뿐이다. 사찰 중심의 관광사업 증진은 지역 수익을 증대시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자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지역 문화 및 문화를 보존하고, 특화시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부수적인 효과를 얻고자하는 데 있다.

이같은 지자체의 계획에 불교계에서는 반기는 곳이 있는 반면 개발로 인한 사찰 주변 환경 및 불교문화훼손, 스님들의 수행공간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 곡성군은 당해 사찰과의 협조와 국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그런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역민과 불자들도 책임대신 지자체가 더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켜봐 줄 것을 당부드린다.

문화의 세기를 맞아 불교계 성보박물관과 유물전시관의 운영 실태와 소장 유물에 대한 점검과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국적 성보박물관은 이미 완공돼 운영중이거나 공사를 진행중인 곳을 합쳐 모두 16곳이며 자체 유물전시관을 보유하거나 건립중인 사찰도 7곳에 달한다. 그러나 조계종 문화부가 지난해 개최한 '학예연구원 1차 간담회'에 따르면 23개의 박물관과 전시관의 운영이 순탄하지 않다는게 간담회에 참여했던 9명의 학예연구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간담회에서는 "성보박물관 유지비 지원이 절실하다" "유물 관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학예연구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통사상 성보박물관의 경우, 한 달 평균 1천만원의 유지비가 사용된다. 다른 박물관 역시 수백만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다. 재정이 튼튼하다는 본사찰 사찰이라도 매달 이와같이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용주사와 수덕사 등이 박물관 개관을 늦추는 이유도 재정적인 한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찰에서 학예연구원 외에 박물관 상근자를 채용하기는 힘들다. 자연히 학예연구관의 일은 성보 연구와 관리 외에도 박물관의 일반 행정도 도맡아야 할 만큼 점점산중이다. 그렇다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다. 모사찰의 성보박물관에서 일하던 학예연구관은 4개월만에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계종 총무원에 올해 예산에 '박물관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고 한다. 일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 액수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대략 600만원선. 조계종 총무원 지원하는 수준이지만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지만, 성보박물관 일선에서 지적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종단적 차원에서 성보박물관의 운영 실태와 유물 관리에 대한 반성적 점검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

성보박물관 운영



오종욱 <취재2부 기자>

독자의 소리

음악극 '일식' 보며 환희심

지난 일요일 대학로 문예회관에서 공연중인 음악극 '일식'을 관람했다. 월명스님의 도술가를 모티브로 한 이 음악극은 제목 자체로는 아무런 불교적 감흥을 느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음악극 곳곳에서 불교적 감흥과 사상을 체험하게 했다. 우선 등장인물들의 면모가 그렇고, 음악적 소재로 사용된 법파와 그 표현 도구로 사용된 목탁 등도 우리 연극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불교적인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슴 멍하게 다가왔던 것은 월명스님의 '도술가'를 오늘의 언어로 새롭게 창작해 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도술가'라는 제목만을 국어책에서 배웠을뿐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도술가'를 연극적 모티브로 읽어낸 연출가의 의도에 감탄하면

서, 불교적 메시지를 담은 연극, 뮤지컬 등 대중 문화산물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대희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달라이라마 방한 허용"

18일 서울대 총학생회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나는 달라이라마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다. 솔직히 크게 관심도 없다. 그러나 궁금한 것은 노벨평화상을 받은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왜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고려해 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더욱 더 이상하다. 중국은 탈북동포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등 이미 외교마찰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는가.

노벨평화상을 받은 인물의 방한을 허용했다고 해서 외교마찰이 일어난다면 그런 나라와의 외교관계는 오히려 신중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 아닌가 본다. 정조영(경기도 용인시 남동)

일타큰스님의 유고법문집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큰스님 / 신국판 / 5,000원

참선·염불·간경·주력! 어떻게 닦고 익힐 것인가?

큰 행복과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며,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 책은 일타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고집으로, 모든 불자들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참선·염불·간경·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 등을 갖가지 비유와 함께 자상하게 설하여 불자들의 삶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타큰스님의 열반... 큰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오리다.

오 계 이야기

일타큰스님 / 4×6판 / 3,500원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불자의 필독서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지켜야 할 5계! 계율을 잘 지켜 몸과 마음을 잘 단속하면 고요하고 맑은 선정을 이루어 지혜의 빛을 받게 되고,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살생·투도·사음·망어의 근본 4계에 불음주계를 합한 5계에 대해, 재미있는 일화들 들어 각 계율의 원인과 지키는 방법, 계율을 범했을 때의 과보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책은 근본 계율에 깊은 의미를 깨달아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불자들의 필독서입니다.

바른 수행의 길잡이... 일타큰스님의 다른 저서들

- 부덕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앙이론다 신국판 / 값 5,000원
- 기도 (祈禱) 신국판 / 값 5,000원
- 생활 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 불자의 기본예절 4×6판 / 값 3,500원
- 윤리와 인과응보 이야기 신국판 / 값 5,000원
- 범망경보살계 1 - 5 신국판 / 각권 6,000원
- 시작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범공양은 신국판 / 값 5,000원
- 감로법문 (5개 1세트) / 값 12,000원